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에 7월 정기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태안에 있는 연포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점심에 나누는 친교의 식탁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빈 그릇 운동의 취지를 기억하며 남김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30일(목)은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잘 살펴보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앉아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뜨거운 떠약벌과 폭풍우 속에서도 열매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하는 경솔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의 약속 굳게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권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자신이 선택한 길만이 옳은 길이라 외치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마통에 마실 물 없다고 그 많은 외침들 가운데 참된 외침은 적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바른 소리를 가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한상의 정영선 구명자 김윤수 박상호 박영희 박창은 허정윤
 이한림 김명희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최종미 김훈동 박지인
 조관행 홍선희 장원호 박성희 정은영 허호범

월정헌금:

권순 윤정화 권혁순 박혜경 박준희 이기분 송임희 유증희 이재문
 이정은 이유선 방극숙 전영규 김경수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권순 윤정화 윤여민 임보람

감사헌금:

안정숙 박상규 신연화 박영희 이정은 박두석 이건화 하은주 이재문
 정종삼 고숙이 아름다운 어린이집 무명3

녹색공헌금:

최동운 박찬정 최성애 최윤기 박영주 김윤수 박상호 오재환
 (누계: 1,390,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우물길기

시골에 와서
오랜만에 우물을 길는다.

자, 그럼 떠나라. 내 손이 풀어준
두레박이 몇 길 어둠을 따라 낙하하는 동안
나도 즐겁게 줄을 따라 뛰어들었다.

(첨병!)
잠시 후 탄탄한 물의 살갓을 통기는
소리의 반향이 울려오고
하얗게 번쩍이는 물의 비늘들이 어둠을 안고 굽이치자
전신에 생기를 띤 우물은
두레박과 하나가 되며 몸을 섞었다.

물은 두레박을 먹고
두레박은 물을 먹고
그리고 두레박이 소리없이 물밑으로 흘러 들어가자,

나는 서늘한 감촉을 흡수하는 한 마리 가을벌레처럼
푸르고 싱그럽게
몸을 떨었다. (이수익)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안으시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품에 안겨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약속 굳게 믿고 빈 들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혼자 걷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애순 권사	기도 / 이재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권아주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박미영 집사

7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박두석 곽혜자 장혜숙 이권화
	헌금위원	한상익 박애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미리 절망하지 않도록

교인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이가 목사에게 물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죄인들을 저대로 살려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증오와 질투에 그만 손을 들어버리신 것 아닐까요?”

목사가 젊은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가구를 만드는 목공으로 살아왔지? 말해보게. 할아버지가 만드신 고급 탁자에 굵힌 자국이 있다면 그 때문에 탁자를 버리겠나?”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럴 순 없지요. 굵힌 자국이 좀 있다 해서 고급 탁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잘 만들어진 참나무 흔들의자에 생채기가 났어. 그 때문에 흔들의자를 버리겠는가?”

“생채기가 났다고 흔들의자를 버려요? 그럴 순 없지요. 생채기가 좀 났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자네, 진짜 목수답게 말하는군.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공들여 만드신 사람한테 흠이 좀 생겼어도 그 가치와 쓸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다네.”



하나님의 좋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미리 포기하여 손을 털어버리는 잘못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당신 바라보는 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도록, 부디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에 대하여 미리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주십시오.

이토록 단순한 것을

두 도둑이 노인 방에 들어가 울러댔다.

“돈 될 물건 있으면 모두 내놓아라. 허튼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노인이 말했다.

“이것이 내가 지닌 돈 전부라네. 돈 말고도 쓸 만한 물건이 있는지 잘 보시게.”

도둑들은 껌싸게 방안을 살펴보고 눈에 띄는 몇 가지 물건을 챙겼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다가 벽장에 코트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옷걸이에서 벗겨 자루에 담았다.

두 사람이 막 집을 떠나려 할 때, 노인이 방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를 부둥켜안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다.

“여기 오늘 오후에 산 셔츠가 있네. 자네들 몸에 맞을 거야.”

도둑 하나가 돌아서서 노인에게 물었다.

“지금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요?”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일세. 그분은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앙갚음하지 말고, 누가 네 코트를 가져가거든 셔츠까지 주라고 하셨다네.”

두 도둑은 노인의 단순한 말에 속으로 감동하여, 방금 집안에서 챙겨가지고 나온 물건과 돈을 모두 도로 내놓았다. 그러고는 한 도둑이 노인에게 속삭였다.

“노인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다른 도둑이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길이 이토록 단순하고 솔직한 데 있는 줄을,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에 이제 겨우 알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신의 가르침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몸과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당신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유식하고 영리한 어른들보다 어수룩한 늙은이와 천진한 아이들한테 있음을 이제 겨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먼 길을 저와 동행하신 주님,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제 곁에 당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현주, <<보는 것마다 당신>> 중에서